# 한 지붕 네 가족… "공동체 삶이 곧 수행"

## 행복한마을 부산 사부대중공동체 '휴심정'

참 나 혹은 본래 불(佛),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수행공동체의 삶을 선택한 가족들이 있다. 지난 9월 17일 새롭게 문을 연 사부대중 공동체 '휴심정(休心停)'에 사는 네 가족 이야기이다. 11월 28일 부산 수영구 바다 광안리가 보이는 휴심정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된 그들을 만났다.

휴심정에 모인 네 가족은 공동체로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했다. 참선, 절 수행 등 형식적인 수행이 공동체의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특별한 수행 일과를 공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대중으로 모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수행이란 의미다.

지도법사인 은산 스님(행복한 절 주지)은 휴심정 공동체를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먼저 설명했다. 은산 스님은 "스님이 현재 함께 지내진 않아 사부대중이란 형식에 부합하진 않지만 재가자가 중심으로 먼저 모여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소임을 맡은 스님이 오셔서 원래 지향점인 사부대중 공동체로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생활 자체가 수행이다. 공동생활 가운데 삶의 방식이 부딪히며 우리들의 에고(ego)를 발견한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삶이고, 수행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체의 삶이 주는 이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은산 스님은 "자연과 달리 인간만 분리된 의식으로 살아간다. 참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갈 때 본래 의식이었던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으로 살고, 그렇게 마음을 쓸 때 본래 나를 알 수 있다. 본래 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휴심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네 가족이 은산 스님과 차담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사부대중 공동체 지향
### 수행하고 함께 생활해
### 구성원 청규 만들면서
### 포살·자자도 준비 중

100일 가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비바람을 맞은 바위처럼 깎이고 다듬어지는 삶이자, 서로 큰 힘이 돼 든든한 지지대가 되는 것이라 했다. 대중의 힘을 발견하며 쉽게 변하는 자신을 만나는 경험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신서영(45)씨는 "저를 포함해 대중 구성원들이 먼저 알고 지냈고 은산 스님께 인문학 과정을 듣다 공동체 삶을 알게 됐다. 현재는 남편들도 모두 수계를 받아 함께 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호근(47)씨는 "타인을 만났을 때 밖에서 보는 모습과 가족으로 지내며 알게 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내려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옥선(48)씨는 "휴심정에서 공동 소임을 척척 해내니 효율적이다. 가정주부로 우리 가족끼리만 지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다. 사람이 많다보니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낼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석은미(45)씨는 "사실 대중생활 전에는 108배도 해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1080배를 같이 하며 쓰리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함께이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다.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라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대중과 함께 맛볼 생각을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

휴심정은 부산에 설립된 행복한 마을이다. 행복한 마을은 불교계 사부대중 공동체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곳이다. 행복한 마을 촌장 은산 스님은 조계종 해인사 말사 행복한 절(경남 거창 소재)의 주지로 행복한 마을을 이끌고 있다. 휴심정은 부산에 건립된 행복한 마을로 4가족 공동체(구성원 17명)의 터전이다.

휴심정 가족은 매일 새벽 5시 명상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며, 대중소임제로 생활을 하고 휴심정에서는 채식을 한다. 내부 구성원이 지켜가야 할 청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재가자로서의 정기적인 포살과 자자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 영축총림 '화엄의 법석' 열린다

### 12월 18일부터 제47회 화엄산림대법회

선·교·율의 큰 스승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구법의 마음을 배우는 화엄산림대법회가 마련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8일~1월 16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47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화엄산림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각각 오전과 오후 법문이 이어진다. 오후 1시 30분에는 화엄경 약찬게를 독송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설법전에서 법성게 기도를 봉행한다.

법사로는 전국에서 후학 양성에 앞장서며 대강백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이 초청된다. 12월 18일 입재법문은 방장대행 성파 스님이 법문하며, 오후 법석에서는 무비 스님(前은해사승가대학원장)이 화엄경 현담을 주제로 법석을 펼친다. 이후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도일 스님(前송광사 율원장), 종광 스님(前기림사 주지),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각성 스님(前통도사 강주) 등 대강백 30명이 화엄의 세계로 대중을 안내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영가 동참금 1위당 2만원이며 온산림 동참금 20만원, 반산림 10만원이다. 055)381-1288

하성미 기자



## 배추 한 포기에 이웃사랑 '듬뿍'

### 대성사, '자비의 김장 담그기'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가 달서구 내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11월 25일 경내 향림당에서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윤수현 신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정효 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대성사 신도들이 대거 동참했다.

대성사는 총본산 단양 구인사 스님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1,200포기를 직접 다듬고 양념과 정성을 더해 김치 수백 통을 만들어 달서구청에 전달했다.

영제 스님은 "정성어린 김치 한 포기가 동절기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와 활력소가 되어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사는 20여 년 동안 연말마다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밑반찬이 될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연제구불교연합회 나눔의 쌀 기탁

부산 연제구 스님들이 지역민을 위한 나눔의 쌀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기원했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무관)는 11월 28일 연제구청 내에서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쌀은 회장 무관 스님과 수석부회장 지현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스님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금룡암 총무 동선 스님은 "춥고 배고픈 이웃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준 연제구청장은 "현재 연제구는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 다복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스님들의 지원은 큰 버팀목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 茶香으로 하나 된 울산불교

### BBS울산불교방송, 제9회 울산 차문화한마당 열어

법음으로 전법에 앞장서는 BBS울산불교방송이 한국 다도문화를 선양하며 다향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개최했다.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이진용)은 11월 23일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차향 가득한 제9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주최했다.

차문화 한마당은 울산 고유의 차 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뿐 아니라 부산, 양산 등 경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차인들과 불자들이 하나 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찻자리에는 전 세계 다양한 차와 다식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전통 차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부 개막식에서는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차문화협회 소속 최영숙 씨와 월봉사달빛다도회 송점순 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송해경 원광디지털대학 교수가 '초의선사 동다송의 차 정신'을 주제로 강의했다. 아울러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가람예술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BBS울산불교방송은 11월 23일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차향 가득한 제9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진용 사장은 "예로부터 차는 몸과 마음의 수양을 쌓는 하나의 문화다. 특히 다전이 있는 울산은 차와 밀접한 도시"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차 문화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BBS울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영배 스님,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남현 스님, 김기현 울산시장과 윤시철 시의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 한국불교방송신문 개국 2주년 기념법회

(주)KBB한국불교방송신문(대표이사 대봉)이 11월 26일 개국 2주년 기념 대법회를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사진〉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방송신문 총재 보광 스님과 부총재 만각 스님, 대표이사 대봉 스님, 부사장 법성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이사 대봉 스님은 "생활불교, 대중포교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깨침의 소리! 세계로'란 사훈으로 개국,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출범한지 2년이 됐다"면서 "소외 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건전한 언론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대학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이웃과 나누는 한마음 음악회 꽃이 핍니다

안양아트센터에서 2017. 12. 17(일) 오후 3시, 오후7시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스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꽃을 피우려 합니다.
맑은 소리는 꽃향기가 되고 싱그런 열매를 맺으니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주관·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후원·천주교 수아비스 합창단, 안양사암연합 합창단, 한마음선법합창단 후원회 문의 : 한마음선원 사무처 031-470-3100